

오하이오주립대학교·콜럼버스 정착 지침서

Handbook for New Korean Graduate Students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대학원학생회(KGSA)

최종 업데이트: KGSA 비상대책위원회, 2023년 5월 25일

I. 들어가기 전에

안녕하세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한인대학원학생회(KGSA)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에는 매년 한국인 학생이 약 30~40분 정도 입학하고 있으며 박사 후 연구원, 방문 연구원, 교수님도 꾸준히 오십니다. 이에 KGSA에서는 신입생 및 방문 연구원/교수님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유용한 정보를 모아 정착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콜럼버스 정착 과정에 이 지침서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재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체크인과 백신 등 중요한 정보는 학교에서 발송하는 입국 전 알림 메일([Pre-Arrival Messages](#))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 처음 왔을 때 학생회와 재학생들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회(osukgsa@gmail.com)에 문의해주시시오. 저희 KGSA는 여러분들이 연구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GSA 비상대책위원회 소개(2023년 5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경 주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 승 빈 (City and Regional Planning)

II. 출국

1. 여권 및 비자 관련

● 비자 수령 절차 요약

- Form I-20 수령
- I-901 SEVIS Fee 납부
- 비자 신청(DS-160)/비자 인터뷰 예약
- 인터뷰/비자 수령
- 참조: <https://www.ustraveldocs.com/kr/kr-niv-visatypeinfo.asp>

● Form I-20 수령

- Financial review가 완료되면 OIA에서 Form I-20 다운로드 및 출력 방법 이메일 발송
- 출력 후 첫 장 하단에 반드시 본인 서명할 것(검정 또는 파랑).
- 문의: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또는 Office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Admissions

● I-901 SEVIS Fee 납부

-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미국에서 공부/연구하는 유학생의 신분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의 고유번호가 Form I-20에 나와있는 SEVIS ID.
- F비자(I-20)는 \$350, J비자(DS-2019)는 \$220
- 납부 홈페이지: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홈페이지 상단 “PAY I-901 FEE” 클릭
- 납부 시 필요한 정보는 Form I-20 참조(I-20 상단 SEVIS ID 참조)
- 비용 납부 후 영수증(Form I-901) 출력(비자 인터뷰 시 필수 지참)
- 참조: <https://blog.naver.com/bestvisa1004/222124458367>

● 비자 신청(DS-160)

- 비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기 전에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미국 비자신청서인 DS-160 양식을 작성(<https://ceac.state.gov/genniv/>)
- 과거 미국 출입국 내역은 본인 여권 기록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참조(<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24>)
-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페이지가 만료되므로 신청서 작성 중 수시로 저장하기.
- 참조: <https://sammytown.tistory.com/170?category=882871>

● 비자 인터뷰 예약

- 비자 인터뷰 예약 및 비자 수령 방법도 함께 신청함.
- 비용(\$160) 납부 후 영수증 번호를 반드시 받아놓기.
- 납부부터 입금 확인까지 세 시간 정도 걸리므로 기다릴 것.

● 인터뷰

- 준비물
 - 필수: 여권, I-20 원본, 인터뷰 예약 확인서, I-901, DS-160
 - 선택: admission letter, 여권사진(5*5cm) 2장, 재정증명서
 - 학교에서 stipend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생활비(Form I-20 Financials 항목의 Living Expenses)에 해당하는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따라서 stipend를 받지 않는 경우 재정증명서를 지참하기를 권장. 재정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대사관 입장
 - 미국 대사관 정문이 아니라 측면 입구로 들어가서 2층에 인터뷰 장소가 있음.
 - 인터뷰 시작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

- 휴대전화 한 대를 제외한 전자기기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있을 경우 광화문역 사물함을 이용하기를 권장함.

○ 인터뷰 절차

- 대학원생 과정으로 F-1 신분을 받고 특히 학교에서 fellowship 또는 stipend를 받는 경우 인터뷰는 3분 이내로 매우 간단함. 영어로 또박또박 물어보니 긴장하지 않아도 됨.
- 비자 인터뷰를 완료하면, 인터뷰한 대사관 직원이 여권을 가져감.

● 비자 수령

- 수령지 서울을 기준으로 3~5일 내에 비자를 수령할 수 있음.
- 수령 방법(인터뷰 예약 시 결정)
 - 일양로지스 본사 방문(성수동 근처, 무료)
 - 집으로 택배(등기) 또는 지역사무소 방문 수령(14,000원 착불)
- 수령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을 권장.

● 비자 만료와 연장

- F-1비자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만료 1년 전에 비자를 연장함.
- 비자 연장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야 함. 주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한 여권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
- 비자가 만료된다고 당장 큰일나는 것은 아님. 유학생의 실질적인 신분증명서는 Form I-20이기 때문에 Form I-20 만료일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체류 가능.
- 비자는 미국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비자 기한이 1년 이내로 남고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있는 경우 한국에 가서 비자를 연장할 것.

● Form I-20 Travel Signature

- 미국에서 F-1/J-1 신분인 사람이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반드시 Form I-20/DS-2019를 지참해야 함. 유학생의 실질적인 신분증명서는 이 서류들이기 때문.
 - 참고: F-1/J-1이 한 번에 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개월
- 미국으로 재입국 시에 Form I-20/DS-2019의 Travel Signature란에 학교(immigration coordinator)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신청: <https://go.osu.edu/f1travelsig>, <https://go.osu.edu/j1travelsig>
- Travel signature의 유효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명을 받아야 함.

2. 예방 접종

● 개요

- 미국 대학에서는 신입생에게 특정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서 요구하는 백신과 함께 각 대학에서 의무화하는 백신도 있으므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국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예약하여 접종하시길 권장합니다. 백신에 따라 2회 접종하는 경우(4주 간격), 다른 날 맞아야 하는 경우, 같은 날 맞아야 좋은 경우 등이 나뉩니다.
-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채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학교 보건소(Wilce Student Health Center)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방 접종 정보

- 학교 백신 관련 웹페이지: <https://go.osu.edu/vaccination>
- Instructions for Vaccination Requirement ([PDF](#))
- Vaccination Form ([PDF](#))
- 종류

- Hepatitis B(B형 간염), MMR(홍역, 볼거리, 풍진), Meningococcal Conjugate(수막구균), Polio (소아마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Varicella(수두), Tuberculosis test(결핵)
- 기존 접종 이력이나 나이에 따라 맞지 않아도 되는 백신이 있을 수 있으니 양식의 설명을 꼼꼼하게 읽기를 바람.

● 기존 백신 접종 이력 확인방법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 아기수첩(부모님께 문의): 가까운 내과, 소아과에 가서 접종 기록 등록 요청

● 병원 종류

- 보건소: 적은 비용(또는 무료)로 백신 맞을 수 있는지 문의.
- 동네 내과/소아과: 특히 소아과에서는 유아 접종 때문에 백신을 보유하고 있음. 본인이 어렸을 때 백신을 맞았던 병원이면 더 좋습니다.
- 대학병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대체로 필요한 백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학생 전문병원: 유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는 유학생용 백신을 패키지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격이 비싸지만 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e.g., 유학생 백신)하여 맞으시면 됩니다.

3. 짐 싸기+부치기

필수 품목(체크리스트)

- 중요 서류: 여권+비자, Form I-20, 여권 사진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
 - 여권 정보 페이지, 비자, I-20 등은 스캔 등으로 분실 대비
 -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 예방 접종 기록
- 기타 서류: 국제 운전면허증, 항공권

- 금융: 달러화 소액, 해외 사용 체크/신용카드
- 의류: 옷, 반질고리
- 개인 물품
 - 안경, 렌즈, 세척액
 - 칫솔, 치약, 클렌징폼
 - 면도기
 - 화장품
 - 여성용품
- 의약품(기저질환 약), 상비약
- 전자기기, 충전기, 외장하드, 보조배터리, 110v-220v 어댑터
- 기타 필요 물품

짐 싸기 팁

- 웬만한 물건은 미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잡동사니까지 하나하나 챙겨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사오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한국 제품(e.g., 고무장갑, 부엌가위 등) 역시 콜럼버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도착하자마자 장을 보고 생활용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넉넉히 일주일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수저, 물통, 여성용품 등)은 가지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 전자기기
 - 정격 전압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어댑터(돼지코)를 사용하더라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정격 전압이 220V로 고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오지 말 것(e.g., 헤어드라이어)
 - 프리볼트(wide-range input) 제품의 경우에는 어댑터를 사용하면 호환이 가능하므로 가지고 와도 좋음.
 - 프리볼트: 정격전압이 100~220V 등 범위로 표기되어 있음.
 -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대체로 프리볼트 제품임.
- 옷은 미국이 싸다고 하지만 같은 브랜드라도 나라에 따라 상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옷은 사서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 양말은 한국 제품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화장품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 브랜드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 등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지만 한국에 비해 가격이 비싸므로 사용하시는 제품은 사오셔도 좋습니다.
- 가정용 상비약은 대체로 미국에서 구할 수 있지만(V-4 참조) 불안하시면 약국에서 여행용 상비약 묶음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필요한 약 대부분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습윤밴드(e.g., 듀오덤)와 파스는 대체로 한국 제품을 선호하십니다.
 - 생리대나 경구피임약의 경우 미국에서도 팔지만 사용/복용하는 제품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짐 부치기

- 겨울옷이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참고서적의 경우 선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미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편 배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최대한 일찍 보내시길 권장합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우체국 EMS: <https://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vcCenter.postal>
 - 우체국 선편배송
 - 도어로: <https://www.doorro.com>
 - 현대해운 드림백: <https://www.cyhds.com/main/dreambag>
- 각 서비스마다 기본요금, 추가요금, 조건 등이 다르므로 잘 비교해보고 본인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집 구하기: Off-Campus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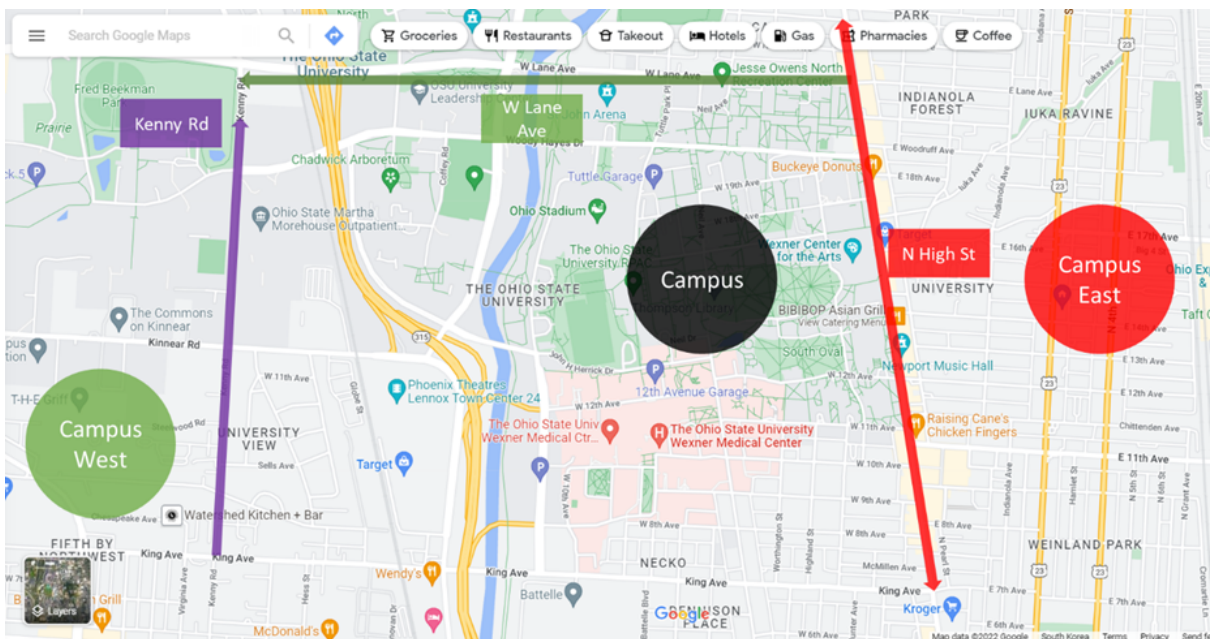
여기서는 지도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간략한 특징을 설명드리고, 주요 아파트먼트(apartments) 검색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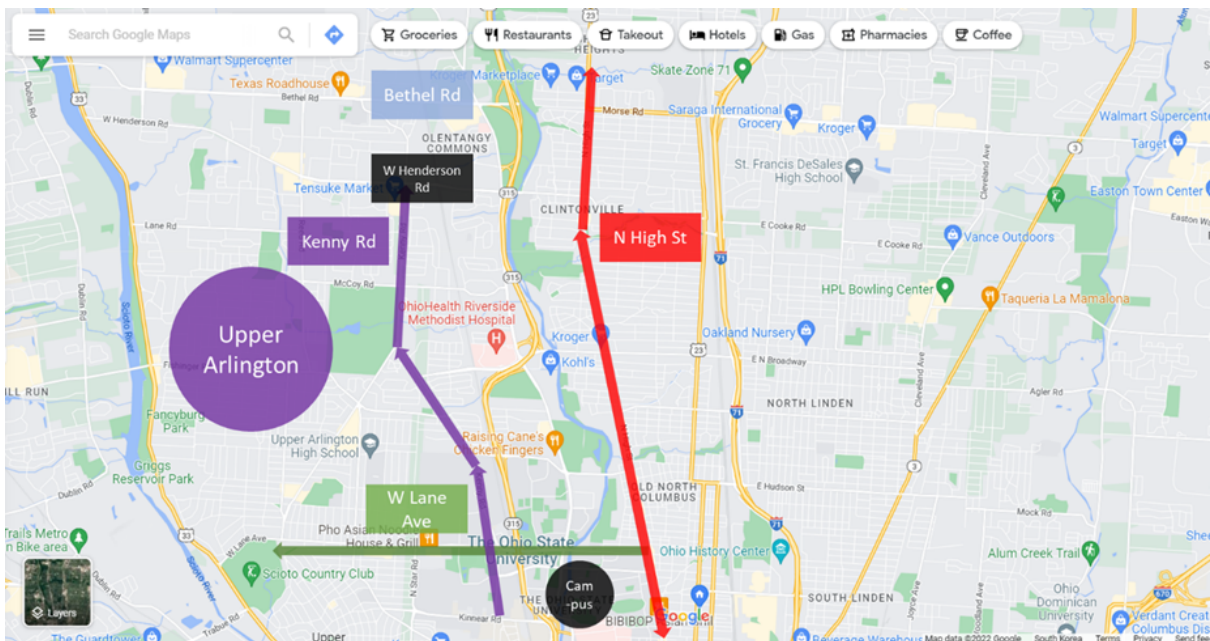
- 미국 길 이름에는 몇 가지 줄임말이 있습니다. 이 줄임말은 공식적인 주소 표기에도 사용하므로 간단한 줄임말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St, Ave, Rd는 각각 Street, Avenue, Road의 줄임말입니다.
 - 길 이름 앞에 붙은 N, S, E, W는 각각 North, South, East, West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North High Street와 South High Street는 “High Street”라는 같은 길이며,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 집 구분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학생이 사는 집을 원룸, 투룸 등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방과 화장실의 개수로 방을 구분합니다.
 - 한국에서의 원룸은 미국에서 studio라고 부릅니다.
 - 그 외에는 원베드(1-bedroom), 투베드(2-bedroom) 등으로 통칭하며, 투베드의 경우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2-bedroom/1-bathroom(2b1b), 2-bedroom/1.5-bathroom, 2-bedroom/2-bathroom(2b2b) 등으로 부릅니다.

Columbus 주거지역 개괄

아래 그림은 Oval을 중심으로 한 OSU 지도입니다. 캠퍼스 주변 지역은 1) N High St; 2) W Lane Ave; 3) Kenny Rd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N High St**는 캠퍼스 가장 우측 건물들을 따라서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Gateway 기숙사와 많은 식당, 바, 클럽 등이 위치한 콜럼버스에서 가장 활발한 거리입니다. 동시에 학부생들이 이 거리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풋볼 게임이 있는 날이나 금요일, 토요일 밤시간대에는 사람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 N High St 우측의 **캠퍼스 동쪽**에는 학부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Fraternity, sorority와 같은 학생 모임(친목, 사교, 주거 등)을 위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가 빈번하며 대학원생이 살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티나 음주로 종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미국 학부생 문화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거주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는 지역입니다.
- **Kenny Rd**는 Olentangy River의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Kenny Rd 좌측의 캠퍼스 서쪽 역시 현지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동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며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Colony Club Apartments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1,000-1,200, 2022년 기준)과 학교와의 거리(건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차로 5분 내외)가 적당하여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W Lane Ave**는 캠퍼스 가장 북쪽 건물들을 따라서 좌측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W Lane Ave 북쪽과 Kenny Rd 서쪽 지역은 Upper Arlington 지역입니다. Upper Arlington 지역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로 한국의 단독주택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W Lane Ave 을 따라 가시면 (Kenny Rd와의 교차로를 지나서), 아파트먼트(apartments)가 조금 있지만,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 아파트먼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편이나, 새로 지어져 시설이 좋은 편입니다.
- **Kenny Rd**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큰 단지의 아파트먼트가 있습니다. Kenbrook Village는 Kenny Rd의 아파트먼트 중 학교와 가장 가까운 편인 곳입니다. 2 혹은 3 beds 타운하우스의 형태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Kenny Rd를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W Henderson Rd**와 **Bethel Rd**와 교차하게 됩니다. 이 교차점들을 중심으로 W Henderson Rd와 Bethel Rd에 대형 아파트먼트 단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대략 차로 15-20분 거리이며 학교 주변보다 조용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대표적인 아파트먼트 단지로 Governours Square, The Benchmark Apartments, Harvard Square Apartments, The Commons at Olentangy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지도는 Off-Campus Housing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의 학교 주변 지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예시로 들어드린 아파트먼트 외에도 다양한 아파트먼트들이 존재하오니 검색을 통해 가격, 학교와의 거리, 동네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먼트 선정 시 고려사항

- 아파트먼트 선정 시 대부분은 월 임대료(rent, 이하 '렌트')와 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의 예산 상황과 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위의 두 조건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외에 공과금(utility fee, 이하 '유틸리티'), 층간소음, 반지하 여부, 관리(maintenance), 편의시설(amenities) 등을 고려하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는 렌트 외에 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 수거비 등을 의미합니다. 렌트가 싸더라도 유틸리티가 비싼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거주자나 관리사무소(office, 이하

‘오피스’)를 통해 유틸리티의 대략적 규모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먼트별로 특정 유틸리티를 렌트와 함께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가스, 전기, 수도 등을 모두 지역 가스, 전기, 수도 회사에 직접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오피스 방문 시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olumbus의 아파트먼트는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따라서 2층 타운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경우 외에는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경우는 반드시 가장 높은 층의 유닛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일부 아파트먼트는 1층이 반지하인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구글 지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그 외에 고려하고 있는 아파트먼트의 관리가 원활한지, 수영장, 헬스장(gym), barbeque grill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지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화나 메일 외에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신 후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먼트는 사전 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투어를 통해 여러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고 오피스에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파트먼트 검색과 계약

- 아파트먼트 검색은 고려하고 있는 단지 이름을 아시는 경우 대부분 직접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먼트를 모르는 경우에는 <https://www.apartments.com/>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 기재된 가격 및 입주 가능 날짜가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화, 메일 및 해당 아파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먼트 계약 시에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application)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background check, co-signer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먼트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문의 후 파악하신 후 지원서 작성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원 시 여러 가지 비용(fee)을 모두 합해 아파트마다 \$100부터 \$350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5. 집 구하기: On-Campus Housing

- 대학원생 기숙사로는 Neil Avenue Building과 Gateway Apartments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의 경우 원베드와 투베드 간 렌트 차이가 크지 않아서 원베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게이트웨이 원베드에 들어가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게이트웨이 투베드, 쓰리베드나 닐 스튜디오에 먼저 들어간 후 게이트웨이 원베드로 트랜스퍼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Neil Building**
 - 위치: <https://goo.gl/maps/zmyEzyZ2m8TK61Kv6>
 - 옵션: Studio, 4-bedroom
 - 장점: 유틸리티 없음, 학교와 가까움
 - 단점: 냉장고가 작음,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음
- **Gateway Apartments**
 - 위치(A동): <https://goo.gl/maps/zmyEzyZ2m8TK61Kv6>
 - 옵션: A동, B동, F동 / Studio, 1-bedroom, 2-bedroom, 3-bedroom(F only)
 - 장점: 수도비(\$10)를 제외한 유틸리티 없음, 학교와 가까움
 - 단점: North High St. 방면으로 창문이 난 방은 시끄러움, 아마존 배달을 Neil Building에 가서 받아야 함
- 방 구조와 렌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housing.osu.edu/living-on-campus/graduate-professional-and-non-traditional-housing/>

6. 환전 및 해외 송금 준비

- 처음 정착할 때에는 미국 은행 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달러화를 환전해 오거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체크카드를 만들어오는 것이 좋음.
- **환전**
 - \$1,000 정도면 은행 계좌를 만들기까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은행 앱(e.g., 신한은행 SOL, 하나은행 하나멤버스)을 사용하면 환율 우대를 90%까지 받을 수 있음.

- 개인 사정에 따라 \$10,000 이상 들고올 경우 외화반출신고 필수
- **해외 사용 체크카드/직불카드**
 - 외국(미국)에서 체크카드 결제 또는 ATM 사용 시 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카드(e.g., 2021년 기준 하나은행 비바 X 체크카드, 글로벌페이 체크카드)
 - 필요에 따라서 해외 거래가 가능한(VISA, Master) 신용카드
- **(중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외국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 돈세탁 등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추적해 제재할 수 있음. 따라서 은행에 유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송금 상한을 없애야 함.
 - 모든 은행(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포함)을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음. 자신의 주거래은행 혹은 부모님의 주거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편함.
 -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할 은행에 문의 후 필요한 서류(Admission letter, Form I-20, 여권 등,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할 것)를 지참하여 등록함.
 - 유학생 신분은 최초로 증명한 후 1년에 한 번씩 신분이 유지됨을 은행에 증명해야 함. 카카오뱅크의 경우 앱 내에서 해결 가능.
- 사용 목적에 따라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카카오, 네이버 인증서 포함), 아이핀(I-PIN) 등 발급 받아오기

III. 입국 및 미국 정착

1. 공항에서 학교 오기

-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Lyft 코드
 - 학교에 요청하면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탈 수 있는 Lyft 코드를 지급(2022년 가을 기준).
 - global-engagement@osu.edu
 - [이 웹페이지](#)에 있는 Preparing your arrival 문서 참조
- 우버(Uber)/리프트(Lyft)
 - 공항에서 학교까지 \$40 내외로 걸림
 - 한국에서 앱을 미리 다운받아 설정(결제 카드 등)해놓고 오는 게 편함.
- 일반 택시
 - 우버나 리프트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항이나 머무는 호텔을 통해서 부를 수 있음.
 - 택시를 타는 경우 가격과 따로 팁(택시요금의 10~15%)을 줌.
- 시내버스(COTA)
 - COTA AirConnect 노선을 탈 수 있지만 짐이 많고 콜럼버스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헛갈릴 수 있으므로 비추천.
- 렌터카
 - 초반에 가구를 사거나 장을 보는 등 며칠 동안 차를 쓸 예정이면 렌터카 업체가 공항에 많으므로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것도 방법.
- 학과 선배 연락
 - 선배가 있는 과는 제일 편한 방법. 대체로 신입생 때는 도움을 받으므로 부탁해보면 됨.
- 학생회 라이드 지원(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2022년부터 학생회 차원에서 라이드 매칭 서비스 운영. 신청 시 학생회에서 가능한 재학생을 연결해줌.

2. 집 입주

● 유틸리티

- 미국에서는 공과금 납부 시 전기, 가스 회사에 개인 계정을 만들고 직접 만들어야 함. 수도, 전기, 가스 등이 있음.
- 주로 AEP, Columbia Gas of Ohio, Nationwide Energy Partners 등 회사에 계정을 만들게 됨. 아파트마다 회사가 지정되어있기도 하므로 집 계약 시에 반드시 물어볼 것.

● 인터넷 연결

- 인터넷 역시 개인이 직접 연락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 주로 AT&T, Spectrum을 많이 쓰고 Xfinity, Verizon도 있음. 혹은 저렴한 공급자로는 Wow가 있음. 아파트마다 호환이 잘 되는 회사가 있기도 하니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문의하면 더 좋음.

●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 아파트먼트에서 세입자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State Farm, Geico, Progressive, Lemonade 등 회사에서 세입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일부 아파트먼트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에서 집 열쇠 수령하기

● 전구/스탠드 설치

- 미국 집에는 집에 전구 소켓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구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Amazon이나 IKEA에서 전구 스탠드(floor lamp)를 사는 게 가장 일반적임.

● 가구 사기

- Amazon, IKEA, Wayfair, Staples, HomeDepot, HomeGoods, TJ Maxx, Marshalls
- BBB (Bed, Bath & Beyond): 침실, 화장실 물품 위주

- 고정된 샤워헤드가 불편한 경우 줄이 달린 샤워헤드를 사서 사용하기도 함. 혼자 설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아파트 기사(maintenance worker)에게 부탁해도 됨(특히 기숙사의 경우).

3. 은행 및 신용카드

은행과 은행 계좌

- 자주 이용하는 시중은행
 - JP Morgan Chase Bank: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 Bank of America(BoA)
 - Huntington National Bank: 콜럼버스 로컬 뱅크
- 계좌 종류
 - Checking Account: 한국의 자유입출금 계좌
 - 입출금 제한이 없는 만큼 이자도 없음. 체크카드(debit card)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야 함.
 - 한국과 달리 계좌에 최소 잔고(minimum balance)를 넣어두어야 계좌 유지비(account maintenance fee)를 은행에서 청구하지 않음. 또는 학교에서 받는 월급(stipend)을 계좌로 자동이체(direct deposit)를 걸어두면 계좌유지비가 청구되지 않음.
 - 계좌를 두 개 이상 쓰는 사람의 경우 BuckeyeLink 또는 Workday에서 월급을 둘 이상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Savings Account: 한국의 예금 계좌
 -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여윳돈을 넣어두면 좋음. 그렇다고 이율이 눈에 띄게 높지는 않아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음.
- 필요 서류
 - 여권+비자, Form I-20, Form I-94, 거주지 증명서(집 계약서, 스마트폰 요금 청구서 등) 등
 - 은행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음.

- 팁
 - 은행에서 처음 만나 직원이 본인 담당 뱅커가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두면 좋습니다.
 - 학기 초반에는 계좌를 만들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100, \$200씩 보너스를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노력합니다.
 - 체크/신용카드를 만들 때에는 타인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미국으로 달러화를 송금하는 데 필요한 은행 코드(routing number 또는 SWIFT 코드)를 잘 알아둡시다.

신용카드

-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만들 때 받는 보너스(sign-up bonus)와 카드를 사용하면서 받는 포인트로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의 중요성과 유용한 정보는 마일모아(<https://www.milemo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첫 신용카드는 SSN을 발급 받은 후 DISCOVER에서 Student 또는 Miles It 카드를 받는 경우가 많고, Chase와 AMEX(American Express)의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합니다.

4. 핸드폰 개통

- 은행 계좌와 함께 처음 해야 할 일. 유학생은 대체로 Prepaid 옵션을 사용함.
- 통신사
 - 3대 통신사: AT&T, Verizon, T-Mobile
 - 이 중에서도 AT&T와 Verizon을 많이 씬. 두 통신사가 비싸기는 하지만 전화가 가능한 구역(coverage)이 가장 넓으므로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도 잘 터짐.
 - 한국에서 산 스마트폰(특히 5G)의 경우 통신사의 따라 주파수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자 통신사에 문의할 것

- 기타 통신사: Spirit, Mint
- Family Plan
 -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결합을 신청해서 통신비를 크게 할인 받을 수 있음.
 - 예시: 5명이 결합한 AT&T prepaid family, LTE 5GB의 경우 세금 포함 \$19.44
- 한국 번호 유지
 - 한국 알뜰폰 요금제로 바꿔 쓰기
 - 통신사에 연락하여 장기 정지하기(문자, 전화 수신 불가)
 - 통신사에 연락하여 가장 싼 요금제로 바꾸기(문자, 전화 수신 가능, 비쌘)
 - 그냥 두기(지금 내는 핸드폰 요금 계속 내는 방법 - 한국 갔을때 편할 수 있으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
 - e-sim이 상용화되어 한국 번호를 유지하기가 수월해졌으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
- 팁
 - 출국 시 유심을 먼저 끼워서 올 필요 없음.
 - 한국 회선으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로밍을 하면 편할 수 있음. 장기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첫 일주일 정도는 가족과의 소통, 미국 핸드폰 문제가 있을 때 카카오톡 사용 등.

5. SSN/ITIN

- 개념
 - Social security number(SSN)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행정, 금융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 9자리(XXX-XX-XXXX)로 구성되며 중요한 행정업무(e.g., 운전면허 발급 등)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마지막 네 자리만 요구함.
 - F-1/J-1의 경우 학교와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i.e., GRA, GTA, GAA)에 발급 받을 수 있음. Fellowship은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급 받을 수 없음.
 -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체로 SSN이 필요함. ITIN으로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카드사가 있다고 하지만 극소수임.

- 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ITIN)는 SSN이 없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세금보고용 개인 식별번호.
 - Fellowship은 대체로 1년인데, 2년차에 GA 계약 후 SSN을 발급받은 다음에 2년치 세금 보고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음.

SSN

● 발급 절차

- 아래 사이트에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EVL)를 가지고 학과 내 관련 스태프와 만나 개인정보, 주당 근무시간 등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을 받음.
- OIA 건물 1층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제출함(dropbox)에 제출.
- OIA 담당자가 서명 후 EVL pick up 약속시간을 정하기 위한 메일을 보내줌.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방문하여 SSN 신청.
 - 코로나 시기에는 예약 후 방문이 원칙이었으나 2022년 4월 이후 예약할 필요 없다고 공지되어 있음.
 -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던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청해 발급 받았을 수도 있으므로 가족에게 확인할 것. SSN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데 잊은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직원에게 “나 원래 있었는데 까먹었다”라고 말하면 처리해줌.

● SSA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Form I-94, Form I-20/DS-2019, EVL, Form SS-5
 - Form SS-5 인쇄: <https://ssa.gov/forms/ss-5.pdf>

● OSU 근처 SSA Office 위치

- 200 N High St, Columbus, OH 43215 (866-964-1723)
- 1051 Worthington Woods Blvd, Worthington, OH 43085 (866-789-0957)
- 1060 Georgesville Rd, Columbus, OH 43228 (866-656-0178)
- 220 S Hamilton Rd, Columbus, OH 43213 (866-592-0733)

● 관련 학교 안내 페이지: [OIA 링크](#)

ITIN

- 학기 중에 OIA에서 ITIN 신청 안내 이메일 발송.
 - 이메일에 ITIN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예약 링크가 포함되어 있음.
 - 필요 서류: 여권, 비자, Form W-7, Form I-20/DS-2019, Form I-94
- OIA에 예약 방문하여 ITIN 담당 직원과 함께 필요 서류 검토 후 신청 서류를 학교에서 IRS에 일괄 발송
- ITIN이 발급되면 IRS에서 우편으로 발송해줌.
- 간혹 ITIN 발급을 거절당하는 경우(Reject)가 있음.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ID로 하여 콜럼버스 다운타운에 있는 IRS 지점에 가서 신청하면 됨.
 - 다시 거절당하는 경우 OIA immigration coordinator와 상담할 것

6. 운전면허

운전면허 개괄

- 콜럼버스에서는 자동차를 사지 않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를 사는 걸 권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해주는 일부 주(state)와 다르게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쳐서 새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차량 등록 등 자동차 관련 행정을 관장하는 부서는 Bureau of Motor Vehicles(BMV)입니다.
 - <https://bmv.ohio.gov>
 - 다른 주에서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DMV)라고 하는데, 오하이오는 BMV라고 부릅니다.
 - BMV는 일 처리가 느리기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행정기관이므로 방문할 때는 반드시 생각보다 더 시간 여유를 확보하고 방문하길 권합니다.
 - [온라인 줄서기](#) 활용("Get in line online")
-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은 통상적인 신분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Social Security Card는 웬만하면 집에 보관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BMV에서 State ID Card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State ID Card는 폐기되므로 한 번에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을 권장함(발급비용과 처리 시간이 들기 때문).

운전면허 취득 일반사항

- 운전면허 취득 절차([First Issuance, Ohio BMV](#) 참조)
 - 필기시험 →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 실기시험: 기능시험 → Maneuverability Test (Y자 시험) → 도로주행
- BMV 오피스
 - 사무를 보는 BMV Office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Office는 다름. 아래 세 군데에서만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음.
 - Morse Road (990 Morse Rd Ste A, Columbus, OH 43229)
 - Alum Creek (1583 Alum Creek Dr, Columbus, OH 43209)
 - Hilliard (4740 Cemetery Rd, Hilliard, OH 43026)

필기시험(Knowledge Test)

- 예약
 - BMV 웹사이트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 예약
 - 최근(2023년) 온라인 필기시험이 가능해졌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Form I-20, 여권, 집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BMV 웹사이트 참고)
 - SSN은 발급받은 경우 필수,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 필기시험을 접수할 때 한국/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시험 합격 시에 임시운전면허증(약 \$20)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책자
 - [오하이오 도로교통법 책자](#)(Digest of Ohio Motor Vehicle Laws)
 - Buckeye Center 족보: 오래됐지만 도움이 되므로 일독을 추천([링크](#)).

- 인터넷이나 앱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은행과 연습문제가 많으니 각자 찾아서 풀어보아도 무방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
 - 시력검사가 진행되므로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시력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면허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 키를 피트(ft)-인치(in), 몸무게를 파운드(lb)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불합격)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비용 본인 부담).

실기시험(Driving and Skills Test)

● 예약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같은 날에 보고 싶으면 BMV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필기시험은 통과했다고 체크하면 됨.
- 또는 BMV 여는 시간(8시)에 맞춰 가면 워크인 시험도 가능. 가급적이면 예약을 권장함.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통과 후 60일 이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필기시험 통과 후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함.

● 차량

- 미국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가 직접 차를 준비해야 함.
- 대체로 다른 한국인에게 차를 빌려서 응시함.
 - Maneuverability Test에서 후진이 포함되므로 후방 카메라가 있는 차량이 편함.
- 렌터카 업체(Enterprise Car, Hertz 등)에서 빌린 차는 가능하지만 ZipCar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서 빌린 차로는 응시 불가.

● 기능 시험

- 방향지시등, 와이퍼, 상향등 등 간단한 절차로 진행.

● Maneuverability Test(일명 “Y자 시험”)

- 고깔을 Y자로 세워두고 고깔(corn) 사이로 전진-후진을 한 번만 하면 됨.

- Hilliard BMW 옆의 “Play It Again Sports”에서 일정 금액(현금)과 신분증을 맡기고 콘을 빌릴 수 있음.

- 도로주행 시험

- 조수석에 감독관을 태우고 지정해주는 대로 운전하면 됨. 주로 BMW를 끼고 블록 하나 정도를 돈다.
- 미국에서는 STOP, YIELD 사인에 민감하므로 특히 STOP에서는 차량을 완전히 멈추고 속으로 3초를 센 후에 진행할 것.

기타 팁

- 면허증 사진

-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음.
- 임시/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진을 찍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신경 쓴다면 꾸민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음.

- 국제운전면허증

- 입국 후 렌트 등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집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함.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을 반드시 지참할 것.
- 국제운전면허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미국 입국 후 한 달(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오하이오 법 기준). 따라서 가급적이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일찍 취득하기를 권장함.

- REAL ID(Federally Compliant ID)

-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REAL ID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것.
- REAL ID가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 비행기를 타는 경우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여권을 챙기려면 번거롭고 관리도 해야하므로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REAL ID로 요청하는 것이 좋음.
- REAL ID에는 면허증 오른쪽 위에 금색 별이 들어가 있음.

7. 자동차 구입 및 보험

미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시장을 보고 이동을 함에 있어서 더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차량을 구입하자니 차량구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막막할 것이고, 설사 한국에서 차를 사보셨던 분들도 한국과 다른 시스템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새내기 미국 유학생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의 차량구입에 대한 정보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STEP 1. 가격한도 정하기

-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은 가격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을 정했다면, 예산의 85% 정도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가격에 더해 여러 부가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구매하는 데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같은 주라 하더라도 도시마다 차이가 있고, 보험료는 나이, 경력, 차종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의 10% 내외의 부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특히나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자마자 각종 소모품 교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나와 가장 잘 맞는 차량 고르기

- 예산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은 ‘나와 가장 잘 맞는 차’를 고르는 것입니다.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 물건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여러 차종을 비교해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훗날 후회를 최소화하고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 나와 잘 맞는 차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와 가장 잘 맞는 자동차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차량을 결정할 때에 주로 고려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의 형태

- 자동차를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면 크게 세단, 해치백, 쿠페, 컨버터블, SUV, 그리고 왜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수와 사용목적에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형태의 차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p>세단 (Sedan) > 문이 4개인 일반적인 자동차</p>	 <p>쿠페 (Coupe) > 문이 2개이고 천장이 낮음</p>	 <p>왜건 (Wagon) > 천장이 트렁크까지 수평구조임</p>
 <p>SUV (Sport Utility Vehicle) > 세단 대비 전고와 지상고가 높음</p>	 <p>컨버터블 (Convertible) > 천장의 개폐가 가능함</p>	 <p>해치백 (Hatch-back) > 트렁크와 뒷 유리가 합체 열림</p>
 <p>리무진 (Limousine) > 앞 열 대비 뒷 열의 공간이 넓음</p>	 <p>밴 (VAN) > 뒷 열의 적재공간이 넓음</p>	 <p>픽업트럭 (Pick-up Truck) > 지붕이 없는 적재함이 있음</p>

Figure 1. 자동차의 형태에 따른 분류

- **세단(Sedan):** 운전석, 보조석, 그리고 뒷좌석까지 총 4개의 객실 문과 트렁크로 구성되어 있는 차종을 말합니다. 짐도 적당히 실을 수가 있고, 4-5인이 여유롭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차감까지 좋아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차종입니다.
- **해치백(Hatchback):** 객실과 트렁크의 구분이 없는 차종을 말합니다. 최대 탑승인원은 4-5인으로 세단과 비슷하지만, 트렁크 공간이 세단 대비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자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경우에는 뒷좌석을 눕혀 적재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크기가 대부분 작기 때문에 주차가 용이합니다.

- **쿠페(Coupe) & 컨버터블(Convertible):** 쿠페는 본래 2인승의 세단을 가르키는 말이었으나, 최근들어 2-5인승에 2개의 객실 문을 가진 차종을 총칭합니다. 그리고 컨버터블은 차량의 지붕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차종을 말합니다. 쿠페나 컨버터블은 1차적으로 선택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문이 2개 뿐이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희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독신가정의 경우라면 과감히 생각해볼 수 있는 차종입니다.
- **SUV(Sport Utility Vehicle):** 크고 넓은 좌석 및 트렁크 공간으로 실용성이 높으며, 전고와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험한 도로나 산길 같은 곳에서의 주행 능력이 우수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고 탑승객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무거운 차체로 인하여 연비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짐을 많이 싣는 편이거나,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쾌적하게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볼만 합니다.
- **왜건(Wagon):** 세단의 형태에서 지붕이 트렁크까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는 차종을 말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해치백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넉넉한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고 세단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짐을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유지비**

- 유지비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류비입니다. 유류비는 엔진의 배기량과 관련이 깊는데, 일반적으로 배기량이 클수록 엔진의 무게나 체적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연비는 다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차량의 무게와 탑승인원, 그리고 사용환경 등에 따라 배기량이 적당히 큰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낮은 배기량을 선택해야만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탑승인원이 대부분 3인 이상이고, 짐도 제법 싣고 다녀야 하는 경우라면 적은 배기량의 엔진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커 연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기량이 크면 스트레스 없는 가속감과 같이 운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드라이빙 스타일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나중에 차를 되팔 때의 가격

- 자동차는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떨어지는 가격은 차량 모델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모델일수록 감가상각의 폭이 적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차를 처분할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차량 색상과 옵션입니다. 같은 모델 내에서도 색상과 옵션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이 또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의 경우에는 유채색 차량들이 무채색 차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무채색 차량들은 오래동안 질리지 않고 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중고차 가격을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차량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옵션의 경우를 보면 가급적 옵션이 많은 차량을 선택하는 쪽이 좋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주행보조장치와 같이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장착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추후에 차를 처분할 때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STEP 3. 가격 비교하기

- 본인에게 맞는 차량 모델을 찾는 것까지 마쳤다면, 지금부터 해야하는 일은 열심히 발품을 팔아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대리점에 찾아가 차량계약을 완료하면 주문한 옵션을 가진 차량이 공장에서 출고가 되어 구매자에게 배달이 되었다면, 여기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 미국에서는 이미 공장에서 출고된 차량들이 각 대리점의 주차장에 진열된 채로 판매되기 때문에, 같은 옵션을 가진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구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각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다음의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 MSRP는 제조사권장소비자가격을 말합니다. 차량 제조사에서 해당 모델이 적당한 이윤을 제조사와 대리점에 가져다준다고 보고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 OTD(Out-of-The-Door) Price

- OTD Price가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가격에 세금과 기타 제반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차량을 수령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OTD는 MSRP보다 낮을수도, 그리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바람직한 목표는 OTD를 MSRP 밑으로 최대한 낮추도록 Dealer와 가격협상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MSRP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OTD를 확정지으면 매우 성공적인 차량 구매라고 말하지만, 이는 자동차업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근처 대리점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연락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구매하고 싶은 차량과 옵션, 그리고 연식 등을 말씀하신 뒤에 OTD 가격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많은 Dealer들이 OTD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할텐데, 차량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방문하면 덤터기를 쓸 확률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격비교에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마일리지, 관리상태, 연식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자 하는 모델의 적절한 시세를 잘 모르겠다면 Cars.com이나 Carmax, 또는 Kelly Blue Book(KBB)에서 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KBB를 참조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중고차거래는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STEP 4. 자동차 이력 조회

-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 주인이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누적주행거리가 적더라도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미리 사고유무를 포함해 각종 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러한 조사는 [CarFax](#)나 [AutoCheck](#)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CarFax나 Autocheck 등에서 차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해주는데, 차대번호(VIN Number)를 입력하여 전 차주이력이나 사고이력 등을 비롯해 차량에 관한 모든 이력(History)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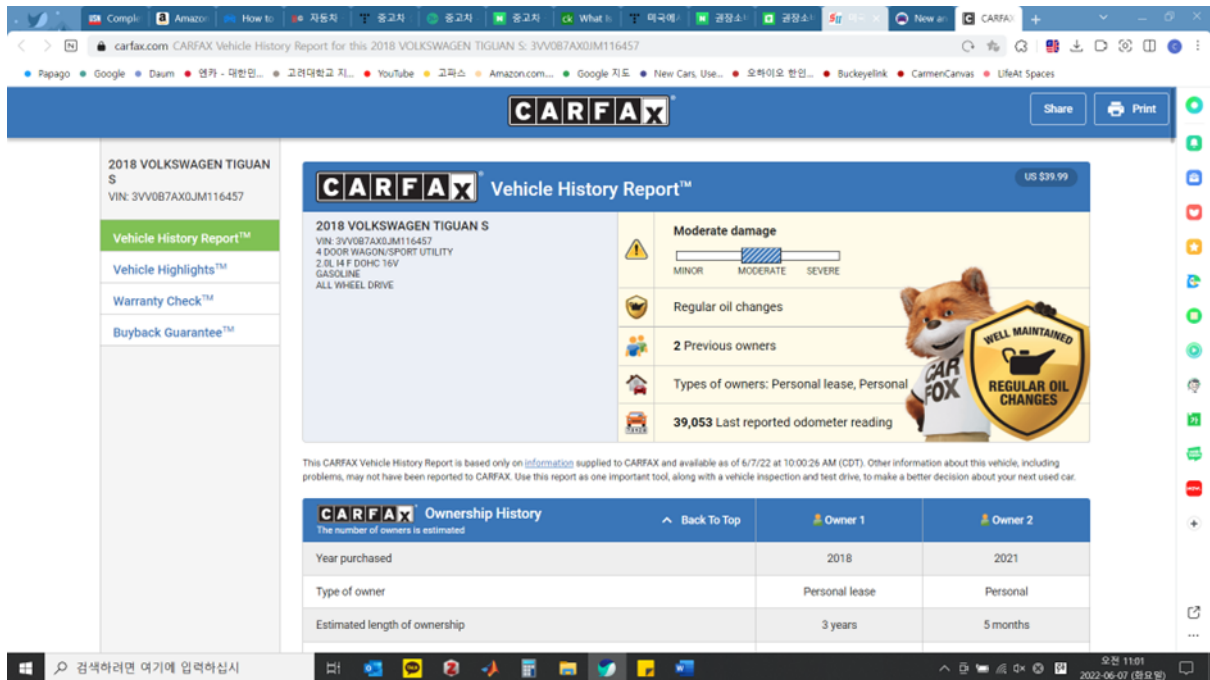


Figure 2. CARFAX History Report 예시 화면

- 그러나 사실 History Report를 꼼꼼히 읽었다 하더라도 드러나 있지 않은 잠재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했을 경우 서류상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력조회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럴 때 고려하는 것이 바로 CPO(Certified Pre Owned)입니다. CPO란 딜러샵에서 각종 검사를 마친 뒤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한 차량으로, 딜러샵 자체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일정기간 내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무상으로 해결해주시기도 합니다. 일반 판매 차량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어 자동차를 잘 모른다면 CPO를 권해드립니다.

STEP 5. 시운전하기

- 의외로 중고차를 사면서도 차량의 내/외관만 확인하고 구매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차를 사고 싶다면 시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 시운전 기회가 오면 먼저 시동을 걸어 이상음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주행은 가급적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선택하여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는 변속 시에 충격이 느껴지거나 변속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체가 떨리거나 소음이 들린다면 브레이크 패드 또는 라이닝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휠 얼라이먼트나 타이어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운전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창문을 모두 닫고, 라디오나 오디오도 끈 채, 차량의 소음과 진동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이나 시트의 열선은 미리 켜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6.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운전까지 마친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열쇠가 2개인지 확인
 -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차키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백불 이상이 듭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차키는 항상 2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중고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요청하여 계약전에 업데이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차량이라면 이 또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 프리/에프터 서비스 패키지

- 무료 엔진오일교환권 등 각종 서비스 프로모션을 확인하여 가능한 많은 것들을 챙겨 받는 것이 좋습니다.

STEP 7. 차량수령

-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다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받아 혹시 놓쳤을 문제점을 확인한다면 추후에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Dealer와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차량 구매 시스템도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한 공부를 한 뒤에 유학기간동안 좋은 추억 함께 쌓을 차량을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 쇼핑

- 미국 마트
 - 식료품점(groceries): Kroger, Giant Eagle (Market District), Whole Foods, ALDI, Walmart, Marc's
 - 편의점: CVS, Walgreens
 - 회원제 할인점: Costco, Sam's Club
- 한인마트/아시안마트
 - 롯데마트(Lotte Oriental Foods), 아리랑(Arirang Oriental Market), 한마음(Han Ma Oom)
 - CAM International Market, Sunrise Asian Supermarket, Saraga International Grocery
- 주요 쇼핑몰/아울렛
 - 학교 근처: Lennox Town Center
 - 큰 쇼핑몰: Easton Town Center, Polaris Fashion Place

- 아울렛: Tanger Outlets Columbus, Destination Outlets, Cincinnati Premium Outlets
- 한국 식품 인터넷몰
 - 울타리몰(<https://wooltariusa.com>)
 - 한품(<https://hanpoom.com>)

IV. 학기 준비

1. 학교 체크인 및 오리엔테이션

- 처음 콜럼버스에 정착하고 나면 학교에 체크인(Immigration check-in)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함.
 - 체크인 등록
 - 학교에서 International Student Check-In and Orientation 관련 안내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안의 링크에서 체크인 날짜 및 시간 선택([날짜 선택 링크](#))
 - 체크인 준비
 - 이메일에 안내된 서류(여권, 비자, Form I-20/DS-2019, Form I-94 등) 업로드
 - Form I-94: 미국 출입국 기록([발급 링크](#), “GET MOST RECENT I-94”)
 - 체크인(온라인)
 - Zoom을 통해 소지한 실물 서류들을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보여줌
 - BuckeyeLink의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확인
 - 체크인 완료 여부 심사 시간 동안 간단한 학교 관련 오리엔테이션 시청 및 질의응답
 - 체크인 완료
 - 체크인(오프라인)
 - 체크인 과정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과정이 Union(학생회관)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OIA에서 발송되는 메시지를 잘 확인하세요.
- BuckID(학생증) 발급
 - 오프라인 체크인의 경우 체크인 시 발급
 - 온라인 체크인의 경우 BuckID Issuance 예약([링크](#))
 -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이 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

- BuckID 충전([링크](#))
 - 학교 프린터, 자판기, Dining Plan 등 이용 가능
 - 링크 클릭 후 상단 “Make a deposit” 클릭
- (중요) 주소 및 연락처 등록 의무
 - 최초 주소와 연락처는 체크인 시 입력함.
 - 학기마다 미국 및 한국 내 실거주지를 확인해야 함.
 - 주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BuckeyeLink에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함.
- 학과, 학부, 단과대 단위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은 개별 이메일 등으로 안내.

2. 학사/수업 관련 웹사이트

BuckeyeLink

- <https://buckeyelink.osu.edu>
- 개인정보 등록,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보험 확인 등의 업무 처리 시스템.
 - 학생의 경우 My Buckeye Link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됨.
- 개인정보 및 연락처 수정: 학기 시작할 때마다 개인 정보, 주소, 연락처 확인 메시지가 옴.

Carmen Canvas

- <https://carmen.osu.edu>
- OSU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수업이나 강의(GTA의 경우) 관리 시스템.
- 스마트폰과 태블릿 앱으로도 다운로드 가능.

Workday

- <https://workday.osu.edu>(BuckeyeLink의 Employee Self-Service로 접속 가능)
- 월급 및 학교와 계약 사항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 시스템.
- 고용계약(GRA, GTA, GAA), 출장 등 비용 처리, 월급명세서(payslip) 등을 확인 가능

- 특히 월급명세서의 경우 세금이나 비용이 얼마나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돌려보기를 권장함.

3. 주요 일정

- University Registrar(<https://registrar.osu.edu>)
 - 학내에서 학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학사 관련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한 번씩 돌려보기를 권장함.
 - 그 중에서도 [Academic Calendar](#) 섹션에서는 매학기 주요 일정을 볼 수 있음.
 - 다른 주는 휴일이지만 오하이오는 아닌 경우, 휴일이지만 학교 직원은 출근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 2023-24 가을학기
 - 08/22(화) 개강
 - 10/12(목)~13(금) 가을방학
 - 11/22(수)~24(금) Thanksgiving Day 연휴
 - 12/06(수) 가을학기 수업 종료
 - 12/08(금)~14(목) 가을학기 기말고사
- 2023-24 봄학기
 - 01/08(월) 개강
 - 03/11(월)~15(금) 봄방학
 - 04/22(월) 봄학기 수업 종료
 - 04/24(수)~30(화) 봄학기 기말고사
 - 05/07(일) 봄학기 졸업식

4. 영어 시험

Intercultural English Language Programs (IELP) Academic English

Writing Test

- 특정 조건(미국대학 학위, 토플 점수 충족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모든 국제학생은 입학 전 영어 글쓰기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심각도에 따라 오프라인 시험과 온라인 시험 가능성이 모두 있으므로 학교 안내 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토플 라이팅과 형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학원생으로서 글쓰기 소양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간단한 인용 등도 시험에 포함됩니다.
- 시험 성적에 따라서 EDUTL5901과 EDUTL5902를 모두 듣거나 EDUTL5902만 듣게 됩니다.
- 시험 면제 조건에 해당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획득하면 글쓰기 수업을 아예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https://ielp.ehe.osu.edu/aewp/graduate-assessment/>

Oral Proficiency Assessment

- 석사/박사과정 중 GTA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OPA는 면제됩니다.
- 첫 시험(OPA) 비용(\$110)은 대부분 학과에서 지원하므로 시험을 신청하기 전 학과 대학원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일상대화로 이루어진 첫 파트, 자기 분야의 개념을 강의하는 두 번째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 총 6점 중 4점 이상을 받을 경우 통과로 인정되며 4점에 미달할 경우 수업(EDUTL5040 또는 EDUTL5050)을 들어야 합니다.
 - EDUTL5040을 듣는 경우 수강 후 exit interview를 통과해 EDUTL5050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EDUTL5050을 듣는 경우 수강 후 Oral Proficiency Certification Assessment(OPCA)를 통과해서 스피킹 관련 수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참조: <https://ielp.ehe.osu.edu/sep/graduate-associates/o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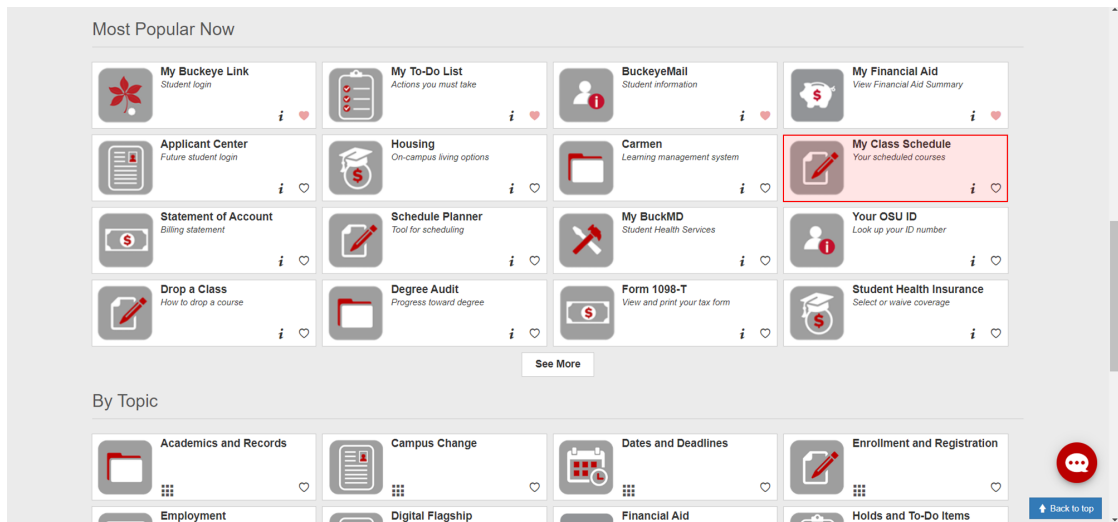
5. 수강신청

- 일반적으로 첫 학기 수강 신청은 학과 안내를 따르거나 지도교수(advisor)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가을학기 기준) 늦어도 학기 시작 전인 7월에는 학과나 지도교수에게 메일로 문의하여 첫 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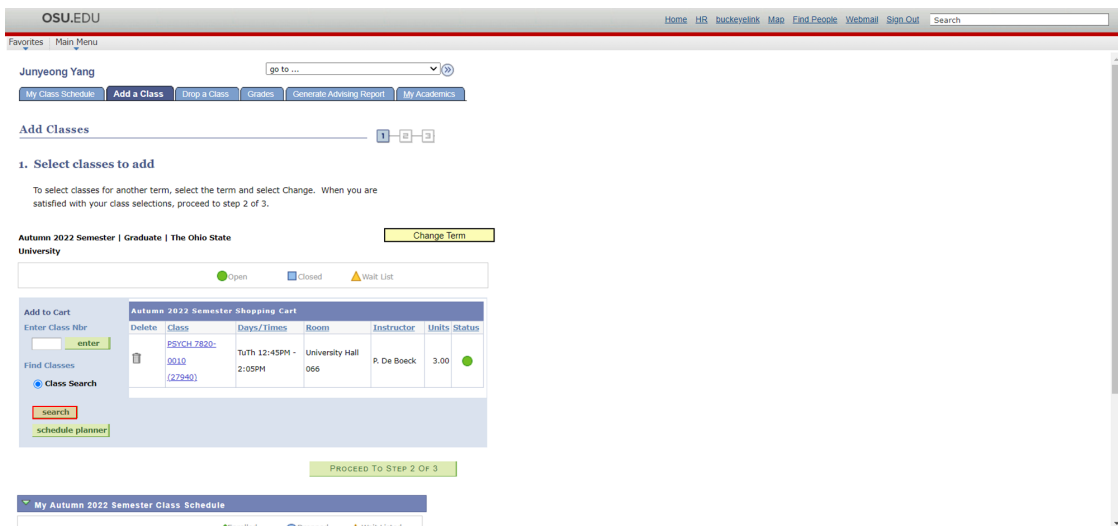
수강신청 과정

- BuckeyeLink 로그인(<https://buckeyelink.osu.edu>) → My Class Schedule
 - BuckeyeLink 화면 구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음.
- 수강신청 학기(e.g., Autumn 2022) 선택 후 [Continue] 클릭
- [Add a Class] 탭 → 화면 좌측 하단의 [Search] 클릭
- Campus와 Subject(프로그램) 선택 후 하단 [Search] 클릭
 - 타 전공 수강 시에는 Subject를 바꾸면 됨.
- 수강신청 과목을 눌러서 시간(Time), 요일(Days), 강의실(Room) 확인.
-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고자 한다면) [Next] 클릭
- [PROCEED TO STEP 2 OF 3] 클릭 → [Finish Enrolling] 확인.
 -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수강신청이 완료되며, 한 번 선택으로는 한국의 장바구니 개념에 저장됩니다.
- 수강 신청 [My Class Schedule] 탭에서 수강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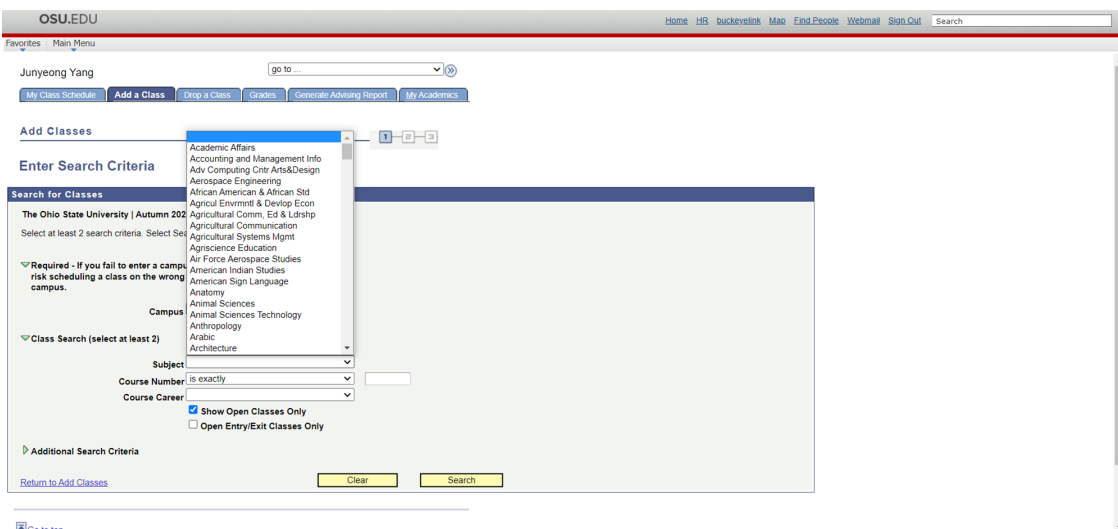
(1) Buckeye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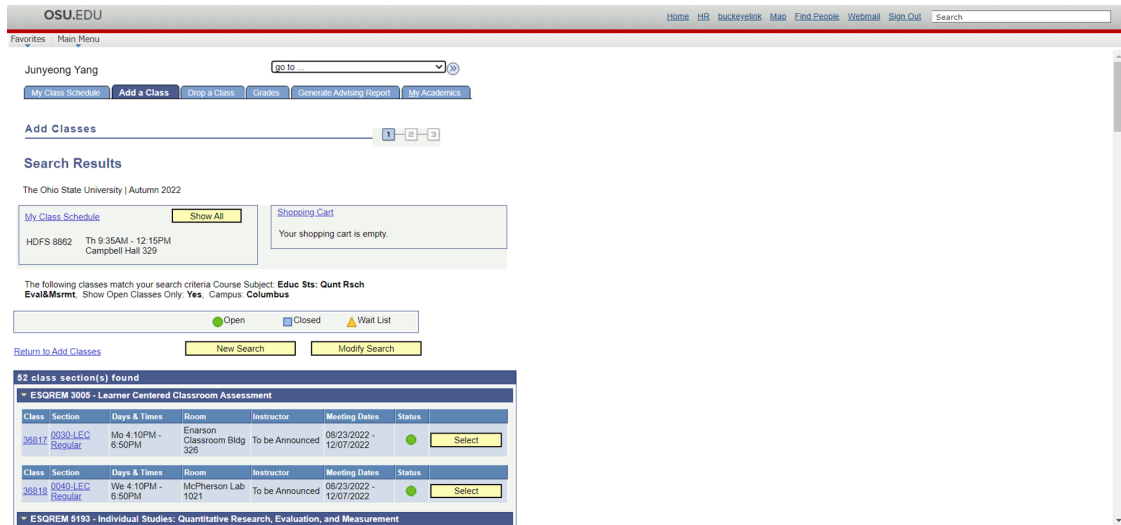
(2) [Add a Class]



(3) 과목 검색 조건 설정



(4) 수강신청 완료 및 확인



수강신청 팁

- 수강신청 사이트는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는 경우 이전에 설정한 검색 설정들이 초기화됩니다. 검색 조건을 수정할 때는 [Modify Search] 버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과목은 선수과목을 요구하거나 담당 강의자의 허가(permit)를 요구합니다.
 - 자신이 선수과목을 채웠거나 기타 자격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과목 강의자(instructor)에게 메일을 보내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강의자가 허가한다는 메일을 보내는 경우 과목이 열리는 학과의 담당 직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forward)하여 직원이 직접 등록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6. 건강보험

건강보험 개괄

- Stipend를 받는 분들은 학교에서 건강보험료의 100%를 커버해줍니다(2023학년도 가을학기부터 100% 적용, 이전까지는 85%).
- 학교에서는 일반 보험의 경우 UnitedHealthCare Student Resources(UHCSR)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치과의 경우 Delta Dental of Ohio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각 회사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앱(app)에서 본인의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 여름학기에 보험이 필요하다면 Summer health insurance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참조: <https://shi.osu.edu/shi-benefits-plan/early-arrival-coverage>
- 보험으로 커버되는 기간은 가을학기부터 다음해 여름학기까지입니다.
 - (중요) 매 가을학기를 시작할 때 My BuckeyeLink에서 보험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보험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관련 메일이 오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확인 과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 <https://shi.osu.edu/shi-benefits-plan/eligibility-and-dependents>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여기에 나와있는 서비스는 2019년 기준이므로 학생 건강보험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hi.osu.edu>).
- 주요 서비스
 - 학교 보건소(Wilce Student Health Center)에서 대부분의 진료 무료
 - 연간 건강검진(yearly wellness exam): 1회/년
 - 병원 시력검사 \$15(1회/년)
 - 시력검사 후 처방전이 있는 경우 안경 렌즈나 콘택트 렌즈 \$100까지 구매 지원
 - 스케일링 및 구강검진 \$17(1회/년)
 - 치과 진료 \$750(일부 서비스의 경우 다를 수 있음)
 - 정신건강 관련 상담(counseling) 서비스

주요 용어

- 보험 관련 용어

- Co-pay: 서비스를 받을 때 병원/약국에 납부하는 비용(\$10, \$20, ...). 현장에서 납부
- Co-insurance: 총 서비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10%, 20%, ...). 추후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
- Deductible
 - 보험에서 서비스 비용을 커버해주기 시작하는 액수.
 - 예시: Deductible이 \$100인 경우
 - 서비스 비용이 \$100 이하로 나오는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
 - 전체 비용이 \$200일 때 \$100은 본인 부담, \$100은 보험사 부담.
- 병원 분류
 - Tier 1: 교내 병원
 - Wilce Student Health Center
 - OSU Counseling and Consultation Service
 - OSU College of Dentistry
 - OSU College of Optometry
 - Tier 2: 학교와 연결된 경우
 - Franklin County 내: OSU Health Plan Network에 가입된 병원
 - Franklin County 외: UnitedHealthCare Options PPO Network에 가입된 병원
 - Tier 3
 - Franklin County에 있으면서 UnitedHealthCare Options PPO Network에 가입된 병원
 - Tier One에 있을수록 보험 적용이 많이 되고 Tier Three로 갈수록 본인 비용부담이 커짐. 이 외의 모든 병원은 Tier 4로 분류.

7. 교내 주차

- 주차권 개념

- 교내에 정기적으로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권을 구매해야 함. 주차비가 싸지 않으므로 본인의 생활 반경과 패턴을 고려해서 구매하여 절약하기를 권장함.
- 주차 관련 내용과 비용은 매년 달라지고, 이 내용은 2022년 6월에 안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길 권장함.

● 용어 설명

- Off-peak Hour
 - 평일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와 주말은 off-peak hour에 해당합니다.
 - 이 시간에는 학교 주차권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주차권 등급에 상관 없이 모든 surface parking lot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주차타워, 장애인 구역 제외).
- Overnight Parking
 -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밤샘 주차(overnight parking)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주차권의 경우 밤샘 주차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D(장애인 구역)
 - 주차장에 “D”라고 표시되어 있음. 비장애인은 절대 이용 불가.
 - 본인이 발이나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주차권 구매 자격을 받을 수 있음.

● 노면주차(Surface Parking): A, B, C 등급으로 나뉩니다.

- A Permit
 - faculty를 위한 공간으로, 학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B Permit
 - 학교 직원(staff)이 구매할 수 있는데, GRA/GTA/GAA도 직원에 해당합니다.
 - B파킹은 대학원생들이 노면주차 할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접근성이 좋은 주차공간입니다. 풋볼 경기장(Stadium) 근처, RPAC(학교 체육관) 근처, Gateway 건물 뒤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 밤샘 주차(overnight parking)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리가 많지 않아 학기 중에는 조금만 학교에 늦게 와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격대도 높은 편(참고로 미국은 1교시가 아침 8시에 시작).

○ C permit

- OSU학생이라면 누구든 살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 주차공간은 많지만 대부분의 건물에서 먼 위치에 있어서 차를 세우고 많이 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밤샘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 평일 오후 4시 이후와 주말에는 A, B 주차장에도 주차가 가능하므로 오후나 밤에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C 퍼밋으로도 충분함.

● 주차타워(Garage Parking)

- Garage란 한국의 주차타워같은 개념으로 주차타워에 천장이 있어 비와 눈이 올 때 편리합니다. 콜럼버스는 비도 많이 오고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이걸 매일 치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주차타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또 주차타워는 주요 학과 건물과 더 가까워서 주차 후 걸어야 하는 거리가 짧고, 아침 일찍 등교하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충분합니다. 한 마디로 비싼만큼 편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차타워는 G(garage)로 표기합니다. BG, CG 퍼밋을 구매할 경우 타워에 주차 할 수 있습니다.
- CG1, CG2, CG3, CG4와 같이 나뉘는데 어느 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CG라고 해서 모든 가라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G도 마찬가지로 나뉘고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타워를 결정한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 게이트웨이(Gateway Apartments) 거주자

- 게이트웨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A동 뒤에 있는 Surface parking (B permit)을 이용하거나 Gateway garage를 이용함.
- 게이트웨이에 거주하는데 노면주차를 원치 않을 경우 게이트웨이 주차타워 전용 주차권(GW)을 구매해야 합니다.
 - GW를 구매할때 본인의 신분(학교에서 월급을 받는지, 게이트웨이 거주자인지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와 가격이 다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C파킹은 Gateway Student Residents Only라고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말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CampusParc에 문의 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GW는 게이트웨이 주차타워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학교 노면주차는 원칙적으로 주차가 불가능함. 게이트웨이에 살 경우 대개 걸어서 통학하므로교내 주차가 불가능해도 큰 불편함이 없음.

○ GW의 경우 off-peak hour에 C surface parking이 가능합니다.

■ 치안이 걱정될 수 있는 밤시간은 off-peak hours에 해당하므로 GW 주차권으로도 RPAC이나 풋볼 경기장 옆 노면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함. 밤에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됨.

● 주차비 납부

○ 월간구매와 연간구매가 있는데, 월간구매를 추천합니다.

○ 연간구매를 해도 비용상 이점이 없습니다(월간비용x12 = 연간비용).

○ 월간구매를 할 경우 stipend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세금 전 공제) 소득이 적게 잡혀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을때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 주차권 취소/환불

○ 연간으로 주차권을 구매하였어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하는 시점 기준 다음달부터 환불됩니다.

○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Return Request Form을 제출하면 주차권이 취소됨.

■ <https://osu.campusparc.com/get-a-permit/return-request-form/>

■ 불안한 경우 CampusParc에 메일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 좋음.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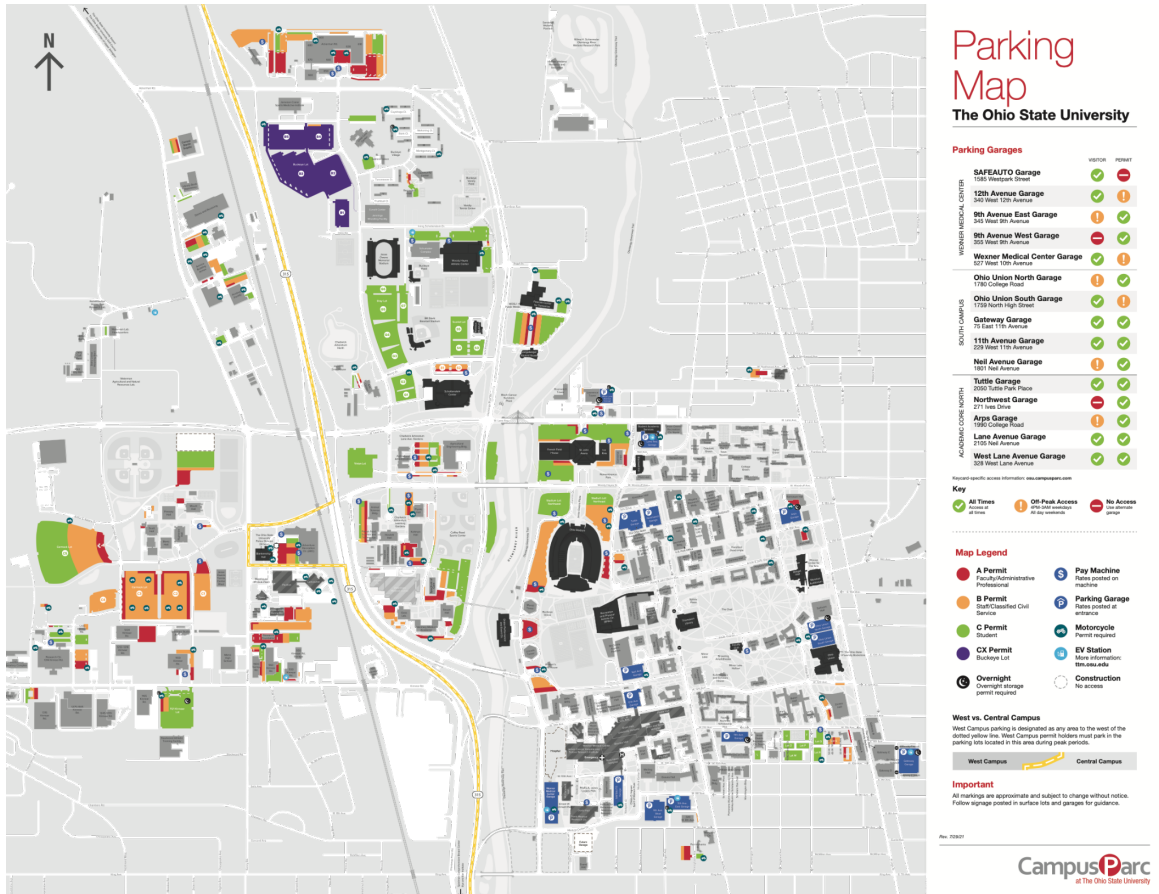
○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대학원생이 주차권을 구입할 때 옵션에 B 퍼밋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CampusParc에 연락하여 자신의 근로계약 증빙 서류(학과에서 온 메일 등)를 보내주면 됨.

■ 원칙적으로는 학과에서 CampusParc에는 직원/GA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있으나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주차권을 처음 사는 경우 우편으로 주차카드가 발송됨. 풋볼데이 등 특별한 날의 경우 노면주차권을 가진 학생도 주차타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날 주차타워에 들어갈 때 사용함.
 - 주차권 사용을 중단, 취소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주차권을 살 계획이 있으면 카드를 CampusParc에 반납하지 않아도 괜찮음. 새로 주차권을 산 이후에 본인의 주차권과 카드를 연동해달라고 요청하면 됨.
-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 번호판(plate)을 주차권으로 사용함. 번호판이 차량 뒷면에만 달린 차량의 경우 반드시 전면주차를 해서 길쪽에서 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자신의 실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첫 과태료일 경우에는 CampusParc에 소명하거나 항의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음.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합의해보는 것이 좋음.

● 유용한 링크

- 주차 관련 웹사이트: <https://osu.campusparc.com/>
- 주차 요금 안내: [PDF 파일](#)
- 주차장 지도: <https://osu.campusparc.com/resources/maps/>



8. Dining Plan

- 학생증에 돈을 미리 넣어 두고(dining dollars) 교내 식당과 카페에서 다이닝 달러로 결제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밥이나 음료를 살 수 있는 제도([안내 링크](#)).
- 다이닝 플랜 구매 방법
 - <https://dining.osu.edu/secure/offcampusmeals/> 접속
 - 원하는 플랜 선택
 - Grubhub 앱(식당 주문, 배달용 앱)을 받아 OSU 학생 신분을 인증하고 결제수단을 BuckID 관련 카드로 설정
- 다이닝 달러(Dining dollars) 충전
 - <https://buckid.osu.edu/deposit/terms>
 - 플랜을 구매한 학기가 종료된 경우 추가 불가. 단, 기존에 충전한 dining dollar는 이후에도 이용 가능. 이를 이용하여 돈을 충분히 넣어두고 35% 할인된 가격에 교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음

- 할인 가능한 식당/카페: Grubhub에서 주문할 수 있는 모든 교내 식당/카페
 - 식당: Oxley's By the Numbers, Mirror Lake Eatery
 - 카페: Terra Byte Cafe(18th Ave. Library), Berry Cafe(Thompson Library)
- Off-campus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플랜: **C1(Carmen 1)**
 - C1(\$459)을 구입하면 학생증에 Dining Dollar \$298(459*0.65)이 충전이 됩니다. 이 돈을 다 쓰면 추가 충전 시 충전 금액이 학생증에 그대로 입금되기 때문에 C1의 효율성이 C2(\$897 구매 후 \$583 충전)보다 더 좋습니다.
- 학생식당 Meal Plan
 - 학부 기숙사 건물에 Traditions라는 뷔페형 학생식당이 있음(e.g., Traditions at Scott).
 -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하고자 한다면 Scarlet 14와 같은 플랜을 구매. 일주일에 지정된 횟수만큼 학생식당에서 무료로 식사 가능.
 - 식당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은 비효율적임.

9. 동아리

- 대학원생 간 친목 도모와 체력 증진을 위한 동아리가 있음.
 - 테니스
 - 축구
 - 클라이밍
- 활동 시간, 가입 방법, 회비 등 자세한 정보는 학생회 홈페이지 [동아리 섹션](#) 참조

V. 기타

1. 학생할인과 가족 결합

- 학생할인
 - 쇼핑: Amazon Prime, Walmart Plus

- 아마존의 경우 학교 계정(@osu.edu)으로 가입하면 6개월 동안 Amazon Prime Membership 무료, 이후 학생할인.

- 미디어: Apple Music, Spotify, YouTube Premium
- 뉴스/잡지: The Economist, The New Yorker

- New York Times는 무료 구독 가능([링크 참조](#))

- 가족결합

- 핸드폰 통신사
- 미디어: Spotify, Disney+, YouTube Premium
- 쇼핑(룸메이트): Costco, Sam's Club

2. 세금 신고(tax filing)과 세금 환급(tax refund)

세금 신고와 환급 개념

- 미국은 매년 4월 15일에 개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생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자신의 모든 세금이 전자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경우 본인이 매매한 기록을 자세히 적어야 하며 차익을 실현한 경우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 세금 신고를 일찍 할수록 환급을 일찍 받으므로(늦을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부지런히 합시다.
- 우리가 내는 세금은 연방세(federal tax), 주세(state tax), 도시세(local tax, municipal ta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방세와 주세에 대해 소득과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을 환급 받습니다.
-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는 Workday에서 Pay 항목으로 들어가 본인의 월급명세서(paysli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유학생은 Nonresident alien 신분으로 세금을 보고하고, 본인이 미국에 산 해가 5년을 넘어가면 그 이듬해부 세금 신고 때부터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로 신분이 변경됩니다(아래 링크 참조). 두 신분 사이에는 세율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세금 신고

- 연방세: GLACIER
 - 연방세는 GLACIER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학교에서 프로그램 이용료를 지급해주며, 가을학기가 시작하면 학교 세금 유관 부서(Office of Business and Finance)에서 안내 메일이 옵니다. 꼼꼼하게 읽고 GLACIER를 셋업해주세요.
 - 1월부터 학교에서 GLACIER에서 신분, 소득, 세금 관련 양식을 작성하라고 메일이 오고, 이를 완료해서 Tax Summary Report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W-2, 1098-T, 1042-S 등의 소득/지출 증빙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 이를 바탕으로 다시 GLACIER 연방세 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학교에서 1040NR(Nonresident alien 신분의 경우)과 여러 관련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이 양식을 확인하고 서명을 합니다.
 - 준비된 양식과 요구받은 서류를 맞춰서 우편으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세
 - 주세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하거나 본인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 Nonresident alien의 경우 Spiritax를 이용하여 세금 신고 양식을 채운 후에(여기까지는 무료) 이를 바탕으로 직접 양식을 채운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양식(IT-1040 등)은 <https://tax.ohio.gov>에서 individual income tax 항목으로 찾아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해에는 양식을 작성해 연방세와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오하이오주 정부에 등록하면 둘째 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미국인들은 TurboTax라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신분과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분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후에 영주권이나 비자 등에 영향을 주므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TurboTax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3. 상비약

미국에서 오실 때 보통 한국에서 상비약을 사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에 해외여행용 상비약 키트(또는 상품 묶음)를 달라고 하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은 상점 약국 섹션(Kroger, CVS Pharmacy, Walgreens Pharmacy 등)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미국 상비약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제품 이름은 기울인 글꼴(*italic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해열/진통제

- 아세트아미노펜 계열(Acetaminophen, 소염효과 없음): *Tyrenol, DayQuil, NyQuil*

- (다른 약도 마찬가지로) 복용 중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 이부프로펜 계열(Ibuprofen, 소염효과 있음): *Advil*

-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 피부 연고

- 항생제: *Neosporin, Polysporin*

- 후시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Neosporin이 대표적이거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Polysporin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 피부재생: *Mederma*

- 마데카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관절, 힘줄 통증**

- 파스(pain relief, pain-relieving patch): *Salonpas*
- 연고(Diclofenac sodium topical gel, 1%)
 - 힘줄(tendon), 인대(ligament)에 염증이 있는 겨우 통증 부위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 **복통**

- *Pepto Bismo*(분홍색 액체)
- 복통, 설사, 속쓰림, 소화불량 등 관련 증상을 커버합니다.

4. 유용한 앱

- **학교 관련**

- OhioState(학교 공식), Ohio State Wellness(정신건강)
- Canvas(학습관리시스템)
- DuoMobile(학교 로그인)
- MyHealth(Wexner Medical Center, 백신 등)
- Workday: 월급(stipend)이나 각종 비용 지원 관련 정보와 서류

- **메신저**

- 미국은 주로 문자메시지(SMS, iMessage)를 사용합니다.
- WhatsApp, Messenger(페이스북+인스타그램 메신저), GroupMe, WeChat

- **금융**

- 은행사/카드사: Chase, AMEX 등
- 송금 서비스: Zelle(각 은행 앱 내에서 사용 가능), Venmo
- 간편결제: PayPal
- 가계부: Mint

- **운전**

- 저렴한 주유소 찾기: GasBuddy
- 내비게이션: Waze(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 보고), Google Maps, Apple Maps

- 공공장소 주차(특히 street parking): ParkMobile, ParkColumbus
- 교통
 - 택시: Uber, Lyft
 - Ride Share: ZipCar(한국의 쏘카)

5. Lyft Smart Ride

-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 및 이동 편의를 돕고자 학교 주변 지역에서 Lyft를 탑승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탈 때 학교에서 \$6.50를 지원해줍니다([학교 설명 링크](#)).
- 시간: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 위치
 - 학교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University Village, 서쪽으로는 Colony Club Apartments, 남쪽으로는 Short North까지입니다([서비스 지역 보기](#)).
- 서비스 받는 방법
 - Ohio State App의 Safety 탭에서 Lyft Ride Smart 누르기
 - Lyft App을 직접 다운 받은 후 학교 계정(@buckeyemail.osu.edu)을 연결